

# 노인의 성생활과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현숙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 of Sexual Life of Elderly and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on Life Satisfaction

Hyun-Sook Jo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성관계와 부부친밀감이 노인의 생활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유배우자가 있는 노인 309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 동안 면접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51%, 여성은 49%로 나이는 60, 70대가 전체의 84.7%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60.1%, 그중 개신교가 24.7%이다. 지역은 농어촌에 사는 비율이 42.9%이고,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87.6%로 나타났다. 성생활빈도에 있어서는 1개월에 1~2회 성생활을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41.4%로 에 달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지역은 중소도시 이상에 사는 노인들이,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생활만족도에서 남성이,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간 정서적친밀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개신교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결과 성생활 만족도는 정서적친밀감( $p<.01$ ), 생활 만족도( $p<.01$ )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lderly's sexual relations and marital intimacy affect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Interviews and visits were conducted for 11 days targeting 309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51% were male, 49% were female, and 84.7% were in their 60s and 70s. Approximately 60.1% of them were religious, of which 24.7% were protestants. In the region, 42.9% lived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nswered that their health status was above average was 87.6%. Regarding the frequency of sexual life, 41.4%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sex once or twice a month. Males had a higher frequency of sexual life than females. A lower age, higher education, living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etter health status, and higher income level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frequency of sexual life. The factors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life satisfaction were gender, region, and health status. Those with religion as Protestantism, residing in a small or medium-sized city or over, with better health and higher income levels were found to have higher life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with sex lif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imacy ( $p<.01$ ) and life satisfaction ( $p<.01$ ).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sexual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s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Keywords** : Sex, Sexual life, Emotional Intimacy, Life Satisfaction, Elderly's 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k Joo(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University)  
email: hsjoos@naver.com

Received May 6, 2021  
Accepted June 4, 2021

Revised May 27, 2021  
Published June 30, 2021

## 1. 서론

오늘날 고령사회의 진입은 국민 삶의 형태까지도 바꿔 놓고 있다[1].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강화 등 사회변화로 ‘빈 둥지(empty nest)’ 기간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길어졌으며,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년의 성은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에도 주목받지 못하였다[2]. 오히려 노인의 성 활동은 불필요한 것이며, 노인은 무성적 존재이고, 성 활동은 건강에도 해롭다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어왔다. 또한 노년기의 성에 대한 부적절한 가치관과 지식은 증가하는 노인의 성병과 성생활 문제, 아동 성추행과 같은 노인의 성범죄나 반사회적인 일탈행위, 사별이나 황혼이혼에 따른 독신 노인들의 성 문제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3]. 그런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노년기의 성에 대한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질적 삶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4].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생활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반면, 신체적 건강과 함께 건강한 성생활이 성공적인 노화의 보조적인 요소로써 실제로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가치, 자기 존재감 내지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도 결부된 형태로 성을 바라보게 하였다[5].

노년기의 성에 관한 연구는 Pomeroy et al.[6]을 시작으로 Christenson & Gagnon[7], Masters & Johnson[8]을 거치면서 점점 많은 연구가 노인들의 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9]. 한국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로 노인의 성 의식, 성과 생활 만족을 주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리적 본능뿐만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된 정서, 태도, 관계 등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10,11].

오늘날 노인의 성문제는 무관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노년기 역시 인간의 어느 발달단계 못지않게 삶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이다. 성은 신체를 통한 자기 표현방법이며 사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성생활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한다[10]. 뿐만 아니라 성은 단순한 성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교류, 정서적 교감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노년기의 성생활은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11]. 또한 “노년기

의 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의 기본적 욕구이자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발전과도 연결되는 근원적이며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12].

노인의 성생활이란 모든 유형의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13], 노년기에 상실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대신하여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14], 노인의 삶에 있어 성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나 현재 노인의 성에 관한 문제는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인의 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들의 성생활과 유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파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동안 ‘성적인 존재(sexual being)’라는 명제가 말해주듯이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Maslow(1967)의 욕구 단계(hierarchy of needs) 이론[16]이나 Alderfer(1969)의 ERG이론에 따르면 성생활은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고[12], 정서적 친밀감은 애정과 소속(Belonging)의 욕구와 관계(Relatedness)의 욕구, 존경(Esteem)의 욕구를 포함한다. 일찍이 나이가 많아져도 노인들은 성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밝힌 보고서[6] 이후로, 남녀 구별 없이 성욕과 성행위는 삶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의 성생활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의하면[4] 노인의 성생활 감소의 원인은 나이보다는 사회적 환경과 주변인의 태도,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노화로 인한 성 기능의 약화, 그리고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년기의 성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신체적, 정서적 자기표출의 욕구이므로 생물학적인 노화로 인해 노인들의 정서적 결속에 대한 기회와 친밀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단절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2], 지난 10년 간

(2002~2012)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년기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꾸준한 성생활이 노화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부부가 친밀하게 능동적인 성생활을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노년기의 성은 단순히 성적 본능을 충족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체에 의한 자기 표출이며, 사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18]. 이렇듯 노인들의 성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과도 연결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주요 개념의 정의

### 2.1.1 성(Sexuality)과 성생활

성은 여성과 남성의 생식적인 요소로, 개인의 성적인태도와 행동으로 구성되는 확대된 개념으로서 단순히 성교(Sex)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만족, 친밀감, 즐거움과 따뜻함을 함축하는 개념이다[16].

세계보건기구(WHO)는 성(Sexuality)이란 “성교, 성적체성과 역할, 성적 취향, 에로티시즘, 쾌락, 친밀도와 재생산을 포괄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Sexuality)은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14]. 성생활은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을 말하지만, 성교에서 사회적 관계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20]. 노인들에게 있어서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성관계를 넘어 그 자체가 정서적인 안정과 애착심, 존경심, 의사소통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1]. 이렇듯 노인의 성생활 만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합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22],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 2.1.2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loseness)

친밀감이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부부 친밀감을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정의[24]하였다. 또한 부부 친밀감을 행동이나 행위로서의 친밀감, 개인적 능력이나 성향으로서의 친밀감,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친밀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25]. 성적 친밀감

이란 부부가 성을 두 사람의 관계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26],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대상과 성적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27]. 성은 부부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28].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신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랑, 친밀감, 안정감과 같은 넓은 정서적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또한 성생활의 만족은 단순히 성에 대한 적응이나 기능이 아니라 부부간의 감정과 욕구의 협상과 조율의 의미를 갖고 있다[29].

정서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라고 생각하며 늘 부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라고 정의[30]하거나,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를 말한다[29]고 하였다. 이는 두 사람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로서 이러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필수요건이다[29] 라고 하였다.

### 2.1.3 생활 만족도(Life satisfaction)

생활 만족도가 일반화된 것은 1961년 Neugarten, Tobin, Havighurst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 지표를 개발한 이후로 보고 있다.

생활 만족도를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있거나[31],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한 느낌”으로 정의하고 있다[17].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노인의 생활 만족도란 노인이 관련되어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합치 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들어 노인의 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년기의 성생활 및 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리적 본능뿐만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된 정서, 태도, 관계 등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 성생활 만족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와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2.2.1 성생활 만족과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성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불만은 개인의 욕구나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 등에 영향을 주므로 성생활의 만족 여부는 개인의 삶 부분에 연관되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14]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신체적 및 정서적, 정신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32,33], 삶에 대한 보람을 높여주는 윤택유 역할을 하므로[18,34] 노인의 성생활과 성 태도가 긍정적이면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1]. 능동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생활 만족도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35]와 능동적인 성생활을 하는 부부의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36]를 보면 성생활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생활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18],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37]고 하였다. 또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23,30], 결과로써 노년기의 성생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것이라고 하였다[30]. 그러면서 성생활은 노화와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고 특히 성관계를 가질 때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노년의 우울증이나 의욕 저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23]. 실제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발기 부전, 성교통,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능력, 근 긴장도, 요실금 빈도 등에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38]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의 삶에서 성생활과 성생활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성생활 만족은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2.2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와 관계

노인의 성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신체적 차원에서의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E. Steinke & M. Bergen[39]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성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의 성, 즉 기쁨, 이완, 의사소통,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노인의 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 친밀감, 즐거움, 따뜻함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36]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성생활은 신체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부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

는 것이다.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성 만족을 높이고 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40]고 하였으며 특히 이런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부부가 성적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부부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격과 의사소통을 반영한다[41]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생활의 만족은 부부간의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이라는 연구 결과[20]도 있다.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27]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의 정도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을 부부친밀감과 같은 의미로, 성적친밀감을 부부친밀감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다[20].

부부친밀감이 노년기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이 중요 변인으로 부각 되고 있다[30]고 했으며, 부부친밀감이 노년에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18]. 이런 연구들은 노년기의 성과 성생활이 생활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인의 성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앞에서 주장한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신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감정적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리고,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성생활빈도,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나이, 학력, 종교, 지역, 건강 상태, 소득수준을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성생활에서 만족도와 빈도로 나누었고,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으로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는 생활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 3.2 연구가설

연구가설 I.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II

1.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성생활빈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III.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들로 설문 조사에 동의한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및 방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20일까지 11일 동안 하였으며, 총 309부 중 서울

마포구 100부, 경기도 남양주시 104부, 가평군 105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 각 척도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5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7문항, 성생활 만족도 6문항, 성생활 7문항,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10문항, 생활 만족도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내용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자료로 최소 1점~최대 5점까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57	51.0
	Female	151	49.0
Age	60~69 years	128	41.6
	70~79 years	133	43.1
	80 years or more	47	15.3
Education level	No learning	45	14.6
	Elementary school graduates	80	26.0
	Junior high school graduate	80	26.0
	High school graduate	66	21.4
Religion	Junior college or higher	37	12.0
	none	94	30.5
	Christian	76	24.7
	Buddhism	71	23.1
Area	Catholic	38	12.3
	Etc	29	9.4
	Big city	62	20.1
	Small and medium-sized city	109	35.4
Health stat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132	42.9
	Etc	5	1.6
	Very good	13	4.2
	Good	150	48.9
	Average	106	34.5
Income level	Bad	30	9.8
	Very bad	8	2.6
	Basic recipient	43	14.1
	Second-level	18	5.9
	Lower middle 70%	113	37.0
	Top 30%	131	43.0

지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성생활과 성생활 만족도 측정은 J. H. Kim[42]과 J. S. Youn[43]이 사용한 도구로 7문항과 6개 문항으로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서열척도 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문제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롬바흐 계수(Cronbach's Coefficient)로 0~1의 값으로 성생활 신뢰도는 최저 0.563~ 최고 0.738로, 성생활 만족도는 0.665로 나타났다. 성생활빈도는 성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J. H. Kwon과 Y. M. Lee[44]가 사용한 도구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은 H. J. Lee[45]가 개발한 부부친밀감의 척도를 토대로 I. J. Yun[13]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J. S. Youn[43]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고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생활 만족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8$ 이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1%, 나이는 60, 70대가 전체의 84.7%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

장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60.1%, 그중 개신교가 24.7%이다. 지역은 농어촌에 사는 비율이 42.9%이고,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87.6%였으며, 생활 수준은 상위 30%의 비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문항별 전체 평균은 3.37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임을 보여 주었다. 노인의 성생활빈도를 분석한 결과, '1개월에 1~2회'가 41.1%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2회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은 3.18로 6개월에 1~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을 분석 결과 전체 평균 3.82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을 통틀어서 보면  $M=3.64$ 로 대부분 보통 이상의 생활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비교

Table 3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성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 $p<.05$ ), 지역( $p<.05$ ), 건강 상태( $p<.001$ )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성별에서는 남성( $M=3.49$ )이, 지역에서는 중소도시( $M=3.57$ )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좋은 편임( $M=3.58$ )이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M	SD
Sexual life satisfaction	Very good	21	7.0	3.37	1.012
	Good	147	48.7		
	Average	78	25.8		
	Not satisfied	35	11.6		
	Never satisfied	21	7.0		
Sex life frequency	Never	55	18.1	3.18	1.283
	1-2 times a year	28	9.2		
	1-2 times every 6 months	62	20.4		
	1-2 times a month	125	41.1		
	1-2 times a week	34	11.2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Very good	59	19.5	3.82	.734
	Good	152	50.3		
	Average	74	24.5		
	Bad	11	3.6		
	Very bad	6	2.0		
Life satisfaction		288	100	3.64	.698

Table 3. Differences in sex life satisfaction, sex life frequency, emotional intimacy and life satisfaction (n=308)

	Division	Sex life satisfaction	Sex life frequency	Emotional intimacy	Life satisfaction
Gender	Male	<sup>1)</sup> 3.49±0.91	3.37±1.11	3.91±0.72	3.69±0.61
	Female	3.24±1.12	2.99±1.34	3.72± 0.97	3.59±0.77
	t	2.107*	2.597**	1.949	1.292
Age	60~69 years	3.47±0.98	3.43±1.25	2.16±0.89	3.66±0.74
	70~79 years	3.32±1.01	3.14±1.27	2.24±0.86	3.63± 0.72
	80 years or more	3.24±0.92	2.62±1.24	2.09±0.71	3.62± 0.48
	F	1.187	6.903***	0.565	0.091
Education level	No learning	3.00±0.95	2.68±1.25	2.50±0.91	3.46±0.71
	Elementary school graduates	3.40±0.98	3.05±1.19	2.21±0.84	3.62± 0.67
	Junior high school graduate	3.50±1.01	3.39±1.24	2.06±0.85	3.68± 0.73
	High school graduate	3.39±1.06	3.31±1.35	2.11±0.86	3.66± 0.72
	Junior college or higher	3.43±1.04	3.38±1.32	2.16±0.76	3.80± 0.56
	F	1.842	2.825*	1.763	1.238
Religion	none	3.25±1.03	2.99±1.32	2.34±0.81	3.35±0.75
	Christian	3.53±1.01	3.41±1.18	2.01±0.88	3.86±0.52
	Buddhism	3.28±1.09	3.10±1.22	2.22±0.91	3.77±0.64
	Catholic	3.38±0.86	3.27±1.34	2.16±0.89	3.60±0.72
	Etc	3.55±0.87	3.28±1.16	2.03±0.62	3.81±0.67
	F	1.199	1.294	2.015	6.940***
Area	Big city	3.52±0.64	3.49±1.07	2.00±0.65	3.75±0.45
	Small and medium-sized city	3.57±1.00	3.39±1.13	2.00±0.93	3.95±0.61
	Farming and fishing village	3.12±1.12	2.84±1.43	2.42±0.83	3.31±0.73
	Etc	3.60±0.54	3.80±0.44	2.40±0.54	4.08±0.33
	F	4.248*	7.038***	6.248***	18.438***
Health state	Very good	3.77±0.83	3.46±1.19	2.00±0.81	4.19±0.42
	Good	3.71±0.82	3.58±1.11	1.86±0.68	3.92±0.58
	Average	3.15±1.01	2.81±1.29	2.44±0.81	3.48±0.64
	Bad	2.61±0.99	2.69±0.33	2.83±1.01	2.81±0.63
	Very bad	2.00±1.30	1.88±1.45	2.75±1.03	2.77±0.57
	F	13.195***	8.840***	15.173***	30.863***
Income level	Basic recipient	3.2±0.94	2.53±1.18	2.31±0.78	3.46±0.63
	Second-level	3.2±0.83	3.24±0.90	2.06±0.74	3.51±0.61
	Lower middle 70%	3.3±1.11	3.17±1.35	2.32±0.87	3.59±0.71
	Top 30%	3.5±0.93	3.40±1.22	2.05±0.86	3.78±0.72
	F	1.982	5.581**	2.459	2.944*

<sup>1)</sup> : Mean±SD  
 \* p<0.05 \*\* p<0.01 \*\*\* p<0.001

다음은 성생활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변수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 즉 성별 ( $p < .01$ ), 연령( $p < .001$ ), 학력( $p < .05$ ), 지역( $p < .01$ ), 건강 상태( $p < .001$ ), 소득수준( $p < .01$ )이다. 여성보다 남성 ( $M=3.37$ )이 성생활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60대가( $M=3.43$ ), 학력은 중졸( $M=3.39$ )이 1순위로 가장 높은 성생활빈도를 나타냈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성생활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만족도 차이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지역( $p < .001$ )과 건강상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준다. 지역의 경우 농어촌( $M=3.42$ )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M=2.00$ )로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건강 상태에서는 건강이 나쁠수록 좋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 친밀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 만족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종교( $p < .001$ ), 지역( $p < .001$ ), 건강상태( $p < .001$ ), 소득수준( $p < .05$ )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는 중소도시,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I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채택한다.

### 4.3 변수 간 상관관계 비교

Table 4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나이, 종교, 소득수준, 생활 만족도를 제외한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 나이는 지역( $p < .001$ ), 건강 상태( $p < .01$ ), 소득수준( $p < .01$ ), 성생활빈도( $p < .01$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건강상태는 안 좋아지며, 성생활의 빈도 및 소득수준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의 경우는 종교, 지역, 생활 만족도를 제외한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 $p < .01$ ), 성생활빈도( $p < .01$ ), 성생활만족( $p < .01$ ), 정서적 친밀감( $p < .01$ )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 성생활빈도, 성생활만족, 정서적 친밀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종교의 경우 지역( $p < .01$ ), 건강 상태( $p < .01$ ), 정서적친밀감( $p < .05$ ), 생활만족도( $p < .01$ )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입은 성생활빈도( $p < .01$ ), 성생활 만족도( $p < .05$ ), 정서적 친밀감( $p < .05$ ), 생활 만족도( $p < .01$ ) 모든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수입이 증가할수록 성생활빈도, 성생활 만족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Gender (1=Male)	1										
2. Age	.053	1									
3. Education level (1=No learning)	-.164**	.332	1								
4. Religion(1=none)	.086	.016	.085	1							
5. Area(1=Farming and fishing village)	-.214**	-.206***	-.098	.267**	1						
6. Health state	.126*	-.243**	-.266**	-.161**	-.191**	1					
7. Income level (1=Top 30%)	.112	-.299**	-.324**	-.042	.063	.167**	1				
8. Sexual life frequency	.148**	-.219**	-.160**	-.100	-.230**	.318**	.148**	1			
9. Sexual life satisfaction	.121*	-.111	-.150**	-.079	-.213**	.416**	.136*	.544**	1		
10.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113*	.012	-.149**	-.126*	-.236**	.377**	.142*	.407**	.565**	1	
11. Life satisfaction	.076	-.017	-.109	-.285**	-.407**	.540**	.163**	.041	.507**	.518**	1

\* $p < .05$ , \*\* $p < .01$ , \*\*\*  $p < .001$



위의 결과를 토대로 성생활 만족도는 정서적친밀감 ( $p<.01$ ), 생활 만족도( $p<.01$ )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생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적인 의미를 나타냈다( $p<.01$ ). 이 또한 정서적 친밀감이 증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4.4 변수들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회귀모형의 구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성생활빈도, 성생활 만족도,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

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생활 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독립변수를 하나씩 선형회귀모형에 추가해가는데, 이렇게 독립변수들이 추가된 선형모형에서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이 독립변수를 선형회귀모형에서 제외시킨다. 이러한 방법을 최적의 모형을 구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였다.

Table 5는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 빈도와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1에서는 종교에서 종교 없음=1일 때 개신교와 불교, 지역은 농어촌=1일 때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소득수준은 상위 30%=1일 때 기초수급자, 중하위 70% 순으로 나타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B	$\beta$	t	B	$\beta$	t
(Constant)	1.723		3.362**	.782		1.639
Gender (male)	-.070	-.049	-.957	-.162	-.115	-2.414*
Age	.005	.041	.758	.007	.059	1.192
Education level (no learning)						
Elementary school graduates	-.061	-.038	-.525	-.080	-.050	-.764
Junior high school graduate	-.160	-.099	-1.220	-.159	-.098	-1.348
High school graduate or higher	-.035	-.023	-.266	-.057	-.038	-.484
Religion (none)						
Christian	.230	.136	2.411*	.223	.132	2.612**
Buddhism	.184	.110	1.989*	.247	.148	2.987**
Catholic	.052	.024	.467	.075	.035	.752
Etc	.075	.031	.588	.070	.029	.614
Are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Big city	.209	.120	2.147*	.228	.131	2.562*
Small and medium-sized city	.606	.415	7.037***	.505	.346	6.398***
Etc	.586	.101	2.124*	.466	.081	1.895
Health state	.416	.477	9.399***	.226	.259	4.920***
Income level (top 30%)						
Basic recipient	-.383	-.196	-3.250***	-.319	-.162	-2.949**
Second-level	-.305	-.100	-1.960	-.312	-.102	-2.249*
Lower middle 70%	-.161	-.109	-2.056*	-.112	-.076	-1.594
Emotional intimacy between spouses				.144	.176	3.277***
Sexual life frequency				.005	.010	.170
Sexual life satisfaction				.109	.154	2.623**
F		14.126***			17.784***	
R2		.478			.595	
R2 change amount					.117	

\*  $p<0.05$  \*\*  $p<0.01$  \*\*\*  $p<0.001$

났다. 모델 2는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과 성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에서는 개신교, 불교가 차이를 보인다. 지역에서는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소득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해 볼 때, 모델 1에서 성별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모델 2에서는 여성 노인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개신교, 불교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지역과 건강 상태는 모델 1과 같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에서는 모델 1에서 기초수급자, 중하위 70%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모델 2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47.8%, 모델 2는 59.5%, 11.7% 증가로 변화량을 통해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II-1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III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했다. 그러나 연구가설 II-2 <성생활빈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했다. 그리고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는 성생활 만족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 이상으로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적으로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의지하고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인의 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들의 성생활과 유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파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들로

설문 조사에 동의한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및 방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 동안 하였으며, 총 309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1%, 나이는 60, 70대가 전체의 84.7%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60.1%, 그중 개신교가 24.7%로 나타났다. 농어촌에서는 비율이 42.9% 이고,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87.6%였으며, 생활 수준은 상위 30%의 비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는 전체 평균은 3.37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임을 보여 주었고, 노인의 성생활빈도는 '1개월에 1~2회'가 41.1%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2회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에 대해선 전체 평균 3.82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의 생활 만족도도 전체 평균 3.64로 대부분 보통 이상의 생활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성생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지역에서는 중소도시가, 건강 상태는 좋은 편 이상일때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빈도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에서는 60대가, 학력은 중졸이 1순위로 가장 높은 성생활 빈도를 나타냈다.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만족도는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 상태에서는 건강이 나쁠수록 좋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 친밀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는 중소도시, 건강 상태는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나이는 지역, 건강 상태, 소득수준, 성생활 빈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학력의 경우는 건강상태, 성생활빈도, 성생활만족, 정서적 친밀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수입은 성생활빈도, 성생활 만족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족도 모든 변수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성생활 만족도는 성생활빈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생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성생활빈도, 정서적 친밀감,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친밀감과 생활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또한 정서적 친밀감이 증

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인들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노년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책임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46],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 또한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배우자와의 성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정서적 친밀감 역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노인들은 안정과 유대감, 그들이 삶을 살아내는데 힘이 되는 기반인 관계자원을 제공받게 되므로 이런 친밀감의 경험은 개인의 복지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정서적 친밀감은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47,48] 역시 노인의 삶에 있어 성생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빈도와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 모델 1에서 성별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모델 2에서는 여성 노인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개신교, 불교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성생활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 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47.8%, 모델 2는 59.5%, 11.7% 증가로 변화량을 통해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II-1〈성생활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III〈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구가설 II-2〈성생활 빈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존경이나 자아실현과 관계가 있고, 성장 욕구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존이나 존재와 관련된 욕구인 성생활에 관련된 욕구가 충족되어야 정서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지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노인의 행복감과 밀접한 생활 만족도는 성생활도 관계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 간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제

고 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을 끌어올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성생활빈도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다만 건강 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배우자와 친밀할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 만족도에서는 개신교 혹은 불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42,44,48]은 대체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생활 만족도는 성생활 만족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노년기의 성생활은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아, 부부 친밀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 되며, 또한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부친밀감을 높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간 의사소통과 공통의 취미활동, 종교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의 성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욕구 해소라는 성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교감해서 친밀감을 상호작용하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인들은 성적 욕구와 관계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자기 결정력과 통제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성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시민단체나 사회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다. 무 배우자의 경우 노인들의 문화 놀이터를 활성화해서 이성 교제나 재혼을 도와주는 일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인복지법 외에도 ‘노인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미국의 성정보교육위원회(SIECUS: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아가 사회복지, 노인학, 사회학, 간호학, 그 외의 여타 학문 분야를 포함, 다학제 간의 교류를 통한 통합적 접근·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References

- [1] K. S. Park, H. S. Chung, "Sexual health and sexual activity in the elderly", *J Korean Med Assoc*, Vol.62, No.6, pp.301-307,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2.573>
- [2] S. T. Lindau, E. O. Laumann, W. Levinson, L. J. Waite, "Synthesis of scientific disciplines in pursuit of health: the Interactive Biopsychosocial Model", *Perspect Biol Med*, Vol.46, No.3, pp.74-86, 2003.
- [3] C. H. Park, *A Study on the Solution for the Sexual Issue of the Ag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pp.10-16, 2009.
- [4] L. H. Joe,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52, No.1, pp.391-417, 2011.
- [5] J. H. Kim, J. S. Yun, "Effects of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n Suicidal Inten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8, No. 4, pp.67-77, 2020.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0.8.4.067>
- [6] Alfred C Kinsey, Wardell R Pomeroy, Clyde E Martin,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1948", *Am J Public Health*, Vol.93, No.6, pp.894-898, 2003.  
DOI: <https://doi.org/10.2105/ajph.93.6.894>
- [7] S. I. Shin, Y. H. Kim, "A meta-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of elders' quality of lif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6, pp.3673-3690,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ic.14.6.201312.3673>
- [7] Christenson, C.V., & Gagnon, J.H., "Sexual behavior in a group of elder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Vol.20, No.1, pp.351-356, 1965.
- [8] Masters, W .H . & Johnson, V.E., *Human Sexual Response*, Little Brown publisher, Boston, 1966.
- [9] D. S. Son, Y. R.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sex in later life from a gender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63, No.1, pp.229-256, 2014.  
DOI: <https://doi.org/10.21194/kjgsw.63.201403.229>
- [10] S. G. Noh, *Elderly loneliness, poverty, disease, and sex*, p.354, Korea Institute of Business Management Publishers, pp. 240-250, 2015.
- [11] S. S. Lee, S. J. Lee, "Effects of older adults' sexual perception on marital intimacy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3, No.4, pp.89-110, 2019.  
DOI: <https://doi.org/10.21321/jfr.23.4.89>
- [12] M. S. Kweon,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Korea, pp.10-16, 2002.
- [13] I. J. Yun, *The Influence of Marital Attachment Security, Self Disclosure, and Perceived Spousal Support on Marital Intimac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16.
- [14] E. H. Hwang, S. J. Shi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xuality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Korean J Adult Nurs*, Vol. 24, No. 2, pp.183-190, 2012.  
DOI: <https://dx.doi.org/10.7475/kjan.2012.24.2.183>
- [15] D. H. Lim, K. A. Park, "Effects of the Senior Citizens' Perception of Sex on th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8, pp.187-130, 2018.
- [16] Douglas T. Hall K, E.Nougaim, "An examination of Maslow's need hierarchy in an organizational setting", *Elsevier*, Vol. 3, No.1, pp.12-35, 1968.  
DOI: [https://doi.org/10.1016/0030-5073\(68\)90024-X](https://doi.org/10.1016/0030-5073(68)90024-X)
- [17] H. J. Shin, J. I. Kim, "Meaning of Happiness Based on ERG Theory in Middle-Aged Korean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25, No.3, pp.315-328, 2019.  
DOI: <https://doi.org/10.4069/kiwhn.2019.25.3.315>
- [18] D. S. Na, Y. D. Kim,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2, No.1, pp.185-203, 2011.
- [19] Barber, H. R. K. 1996, "Sexuality and the art of arousal in the geriatric woman." *Clinical Obstetrics and Gynecology*, Vol. 39, No.4, pp.970-973, 1996.
- [20] Verner, A., Stewart, C., "Adolescent sexual behavior in middle America revisited: 1970-1973.",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6, pp.728-735, 1974.
- [21] D. S. Kim, G. R. Hong, "Sexuality and Sexual Life Experience of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J Korean Gerontol Nurs* Vol.18, No.3, pp. 128-137, 2016.  
DOI: <http://dx.doi.org/10.17079/jkgn.2016.18.3.128>
- [22] E. Y. Choi, J. Y. Ha, "Perception of Sex Life and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he Spouseless Aged", *Korean J Adult Nurs*, Vol. 26, No. 1, pp.58-66, 2014.  
DOI: <https://doi.org/10.7475/kjan.2014.26.1.58>
- [23] M. S. Jang, G. S. Park,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Vol. 2, pp. 232-266, 2012.
- [24] Hatfield, E., "The danger of intimacy",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 pp.

- 207-221, 1984.
- [25] J. W. Jung,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sexual and emotional intimacy",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Vol. 17, No. 1. pp.1-21, 2016.
- [26] Massey, R. F. *The Assessment of sexual intimacy: A validity study*, Th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Doctor of Philosophy, 1999.
- [27] B. J. Park, "Sexual Oppression and Conjugal Relations: A Case Study of Korean Rural Socie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Vol. 37, No. 1. pp.41-72, 2004.
- [28] S. J. Kim, S. Y.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Intimacy, Depression, and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19, Vol. 3, pp. 176-187, 2013.
- [29] N. H. Lim, "Effects of Sex-Role Attitude of the Elderly Couples on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1. pp. 230-240,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1.230>
- [30] Y. O. Park, *A Research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rital Intimacy Of Th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Christian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Korea, pp.3-4, 2012.
- [31] Robert J. Havighurst,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Vol. 8, Vol. 1, pp.20-23, 1968.  
DOI: [https://doi.org/10.1093/geront/8.1.Part\\_2.20](https://doi.org/10.1093/geront/8.1.Part_2.20)
- [32] Block, J. D. Sex over 50. New Jersey: Prentice-Hall Press, 1999.
- [33] H. S. Lee, "The old man's sexual partner about the phenomenon compared",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51, No. 51, pp.103-125, 2014.  
DOI: <https://doi.org/10.15300/jcw.2014.51.4.103>
- [34] Y. S. Kwon, S. H., Byun,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 lif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5. pp.1389-1398, 2019.  
DOI: <https://doi.org/10.22143/HSS21.10.5.99>
- [35] S. Y. Heo, *Longitudinal Analyses on Contagion of Depression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Elderly Couple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Social Welfare, Korea, 2020.
- [36] H. J. Park, S. H. Byun,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f Remarried Couples, Marital Intimacy, Marital Conflict Coping Styl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7. pp.236-252,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236>
- [37] S. M. Kim, H. J. Lee, "Life Stress and Coping Style for Stres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7, No.2, pp.173-182, 2016.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6.27.2.1>
- [38] K. S. Park, H. S. Jung, "Sexual health and sexual activity in the elderly", *J Korean Med Assoc*, Vol.62, No.6, pp.301-307, 2019.  
DOI: <https://doi.org/10.5124/jkma.2019.62.6.301>
- [39] Steinke, E. & Bergen, M., "Sexuality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12, No.6, pp. 6-10, 1986.
- [40] K.S Son, Y.A.Ju,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 : The Moderating Effect of Speaking and Listening in Couple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21, No.4, pp.697-718, 2015.  
DOI: <https://doi.org/10.20406/kjcs.2015.11.21.4.697>
- [41] D. H. Kim, "Sexual Function and Communication in Couples with a Diabetic Partner",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Vol..15, No.2, pp.110-115, 2014.  
DOI: <https://dx.doi.org/10.4093/jkd./2014.15.2.110>
- [42] J. H. Kim, *Perception of sex, sexual life and sexual satisfaction of older adul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2006.
- [43] J. S. Youn.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xuali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Incheon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2010.
- [44] J. H. Kwon, Y. M. Lee,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x and Sexual life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ervice*, Vol.8. No.2. pp. 13-27, 2006.
- [45] K. H. Lee, *Marriage type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Korea, 1998.
- [46] H. J. Lee, Y. J. Kim, "Th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love and sexual attitude) in Later life on quality of lif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4. No.4. pp. 197-214, 2004.
- [47] J. O. Hong, *The Effect of Sexual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among Older Adul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yongji University, Korea, 2015.
- [48] Y. O. Won, J. H. Kwhak,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gnition, Satisfaction Level of Sex Life and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1. No.1. pp. 109-131, 2014.

주 현 숙(Hyun-Sook Joo)

[정회원]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학사)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3월 ~ 2020년 12월 : 경북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 2021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2016년 6월 ~ 현재 : 대한복지뉴스 대표
- 2016년 7월 ~ 현재 : DH평생교육원 대표

<관심분야>

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인성교육, 회복적 정의, 사회복지